metro
메트로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제2677호

'지구특공대' 1골 1도움

'행복을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 취임 … 안보·경제 운용방향 제시할 듯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이날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박근혜 정부' 5년의 시작을 알린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취임사 내용이다. <관련기사 2·3·12·13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사 준비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은 박 대통령은 정호성 보좌관을 비롯한 전략기획 분야 인사들과 함께 조용히 취임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난해 총 대선을 거치며 공약한 내용이 취임사에 오롯이 담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행복'은 취임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틀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뜻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화합, 공직사회의 분발, 국민통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새벽 0시 정각 합참의장 전화보고 받으며 이미 첫 업무 시작 25일 0시를 기점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행사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5년의 출발을 알린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시흥 삼미시장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유권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취임사에는 '안보'와 '경제'가 양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민행복과 직결된 데다 박 정부 취임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고조라는 국면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안보 대통령'을 자처한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할 예정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중국 등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경제 분야 역시 박 당선인이 강조할 대목 중 하나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을 감안해 희망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공약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더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기자

축하공연 예행연습 24일 대통령 취임식 예행연습에서 뮤지컬 배우 최정원, 가수 인순이, 재즈가수 나윤선·국악인 안숙선씨가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왼쪽). 군 의장대가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의장 "軍 이상무" 새벽 전화보고

대통령 취임식 이모저모

축하 만찬주 청도 감와인

○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만찬 공식 건배주로 국내 토종 '청도 감그린 아이스 와인'이 선정됐다. 이 와인은 청도 씨 없는 감으로 빚은 술로 레드 와인의 짙은 맛과 화이트 와인의 부드러운 맛의 장점을 고루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숙취가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상오 청도감와인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스 와인은 홍시로 제조해 달콤하면서도 빨갛 향이 가득한 2007년산 최고급 와인"이라며 "여성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했다"고 전했다.

청도는 박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과 인접해 있으며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앞서 감와인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와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주로도 사용됐다.

오후 1시까지 주변도로 통제

○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가 전면 교통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국회대로(여의2교 북단~서강대교 남단) 양방향 전 차로 ▲여의서로(여의2교북단~국회 뒷문·서강대교 남단) 양방향 전 차로 ▲의사당대로(여의도역~국회 정문 앞) 등이다. 이날 국회 앞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16개 노선 425대는 마포대교와 여의대로를 경유해 우회 운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이동 경로에 따라 부분적인 교통 통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사 당일 대학 졸업식들이 겹쳐 시내 교통이 혼잡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해 동작동 국립묘지를 거쳐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정오께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기상청 관계자는 "취임식 당일 구름이 많아 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행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피스아이' 출동 경계 강화

○ 군 당국이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대북 감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등을 동원한 대북 감시태세도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은 25일 0시를 기준으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새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이 시각에 맞춰 정승조 합참의장이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군 사대비태세를 보고할 예정이다.

취임식 당일인 25일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위기조치반이 가동되고 대테러부대는 즉각 출동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수도방위사령부와 대테러부대도 취임식장 주변을 입체 경계하고 공중침투에 대비해 발칸포 등 대공화기가 비상 대기한다. 강화된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는 취임식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다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평상복귀될 예정이다.

/유선준기자 unique@metroseoul.co.kr

아파트관리비 카드로 못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된 가운데 그 여파가 아파트 관리비에까지 미쳤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하반기엔 기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아파트 제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제휴 카드의 갱신이나 재발급만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하반기에는 중지된다.

이달 초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카드사들이 후속 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규모는 연간 3조원 수준에 달한다. 해당 회원만 200만 명에 달해 아파트 관리비 카드를 이용하던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김지홍기자

실질적 국민행복시대 스타트

장기연체자 채무 조정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원금·이자 탕감과 함께 나머지 빚을 10년 분할로 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복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연체 채무의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연체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조정은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일

콜트 리볼버 권총 특허 획득

[illegible]

새 '펫 원' 진돗개 두마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과 함께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자택을 떠나 청와대로 거처를 옮긴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께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로 떠나는 박 대통령에게 삼성동 이웃 주민들은 생후 1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상당한 애견가로 알려져 있다. 과거 동생 지만씨로부터 선물 받은 진돗개 '봉달이'와 '봉숙이'를 키우다 2006년 열쇠인 분양자에게 새끼 7마리를 분양하기도 했다(사진). 하지만 이후 강아지가 죽는 것이 마음이 아파 최근 수년간 더 이상 키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희망나무'로 명명한 소나무 한 그루를 인근 모 초등학교에 심는 것으로 답례하기로 했다.

/배동호기자

삼성동 집에 국가지휘통신망 설치

새벽 0시 통치권 인수후 취임식까지의 비상사태 대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만 공식적인 임기는 0시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정을 기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박 대통령에게 인수인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사저에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군 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하는 군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도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등 국가지휘통신망도 박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청와대 지하벙커인 상황실 등과 안보상황을 넘겨줬다. 경호실도 동시에 박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논현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우려되는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논현동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했었다.

/배동호기자 steven@metroseoul.co.kr

길놀이 축하 공연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24일 국회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열린 리허설에서 김덕수 신명걸대동한울림단 200명이 길놀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 조성

부산 수영구는 저소득가정 10가구를 선정해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희망엣홈'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희망엣홈은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90가구 중 초·중·고교 학생이 있는 10가구에게 산뜻한 공부방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1000만원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10가구에 대해서는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책상·책장·침대·노트북 등을 설치해 산뜻한 공부방을 꾸며준다.

음식쓰레기 용기 무료배부

부산 중구는 다음달부터 다른 지역에서 중구로 전입 오는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무료 배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 오는 3인 이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정용 3.5ℓ, 공동주택 3ℓ를 1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전입자가 가정에 맞는 용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용은 칩 방식을 사용하는 세대별 종량제 아파트 전입 세대에만 지급된다.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로구 신봉로 2가 1 141-142
TEL:(02)721-9800 FAX (02)730-1581

발행인·대표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봉득
광고국장	조안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병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8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16 등록번호 문화 가-00017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 작품속으로

부산시, 바르셀로나와 자매결연 30주년 맞아… 건축문화제 10월 22일 개막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는 "건축복지-나눔과 살림"을 주제로 오는 10월 22~27일까지 부산디자인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청 등에서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격년제 전환 이후 첫 종합 전시 행사로 진행될 이번 건축문화제에서는 부산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자매도시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 건축 기획전으로 세계적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전'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의 건축가 및 도시 행정가를 초청한 국제 심포지엄도 함께 마련된다.

또 첫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HOPE 프로젝트(서민 주거 역량 강화를 위한 집 지어주기 운동)'의 사업진행 과정도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어왔던 건축가의 해설과 함께 부산의 도시 건축 곳곳을 각 장소별로 둘러보는 건축문화 체험 프로그램 '부산도시건축산책투어'가 올해는 6차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에 "음악의 향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벡스코 오디토리움, 소향아트센터, (주)PDM파트너스 사옥, 국립부산국악원을 돌아보는 제17차 투어를 시작으로 테마별로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각 단체의 유사 행사를 통합하고 사업 주관 단체를 지정해 건축문화제와 공동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포럼은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서, 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은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에서, 시민 참여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에서 공동 주관하게 된다.

건축문화제 부집행위원장 신용재(부경대) 교수는 "건축문화제 종합 전시 행사가 격년제 시행으로 기획이 탄탄해지고 내용이 더 깊어 있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구엘공원 / 안토니오 가우디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받자 22일 경남 창원대학교 체육관에서 경남도와 창원대가 공동으로 연 취업박람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참가자들이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동래 독립만세 재현한다

곳곳서 삼일절 행사 열려

부산보훈청은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3월 1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시 주관으로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동래구 동래고와 동래구청 일대에서는 시민과 학생 등 6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동래3·1독립만세 재현 출사가 열린다.

이날 만세운동 재현은 출정행렬이 동래고를 출발해 박차정의사 생가, 수안인정시장 동래시장을 거쳐 동래구청으로 거리행진을 벌이며 동래시장 앞 간이무대에서는 단막극과 상황극 등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3월 11일 금정구 동래여고(옛 일신여고)에서 3·11 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30일 북구 구포시장에서는 구포장터 3·1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부산보훈청은 3·1절 태극기 게양 및 훼손된 태극기 교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삼일절 상출시나 태극기 게양 인증샷을 부산보훈청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고전영화 한번 즐겨볼까

영화의전당 내일부터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2' 마련

영화의전당이 지난해 6월에 이어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2'를 개최, 각 시대별 흥미로운 고전영화 18편을 상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2'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 시대의 영화 틀틀에 새겨진 시와 흔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획전이다.

영화의전당 필름아카이브에서 수집한 프랑스 음악영화들과 한국시네마테크 필름라이브러리에 소장돼 있는 존 포드 영화들까지 포함해 4부의 다양한 주제들로 기획됐다.

우선 1부 '음악이 흐르는 프랑스 영화'에서는 '금지된 장난'(1952)과 뮤지컬 영화 '쉘부르의 우산'(1964) 등 영화 4편이 소개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환상의 빛'

또 2부에서는 '존 포드 걸작선'을 통해 '철마'(1924), '황야의 결투'(1946), '분노의 포도'(1940) 등 총 8편의 존 포드 대표작을 선보인다.

3부는 '1990년대의 문제적 데뷔작'이라는 주제로 일본 영화의 차세대 거장으로 불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환상의 빛'(1995)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험영화 감독 필립 그랑드리외의 '솜브르'(1998), 인간의 본성과 독창성에 대해 집요하게 탐구해온 브루노 뒤몽 감독의 '휴머니티'(1999)까지 새로운 영화 실험으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아 현재까지도 그 독창성을 이어오고 있는 문제적 세 감독의 남달랐던 데뷔 작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구스 반 산트 걸작선'으로 구스 반 산트 감독의 대표작 '말라노체'(1986), '라스트 데이즈'(2005), '파라노이드 파크'(2007)가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필름아카이브 특별전 2'의 주요 작품은 상영 후 박인호 영화평론가의 시네도슨트 해설이 마련돼 있어 관객들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작품 정보 및 상영시간표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51)780-6061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부산에 첫 공립수목원 화명수목원 등록 완료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는 화명수목원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립수목원으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 첫 공립수목원이 탄생했다.

화명수목원은 등록 첫해엔 올해 관람객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피톤치드 효과로 알려진 편백나무 숲길과 시가 있는 관람 코스를 조성키로 했다.

또 사계절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수목을 식재하고, 관람객들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활용(QR코드) 수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봄꽃 나들이 준비 한창 22일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하우스에서 봄꽃들이 나들이 준비에 한창이다.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는 팬지, 클랍 등 12종 11만 본의 봄꽃이 자란다. 25일부터 봄단장에 나선다. /연합뉴스

고용우수기업 신청하세요

시, 내달 11일까지 모집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고용우수기업'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5%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지원된 작업환경개선비를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되 1차로 2000만원 균등 지원하고, 2차에는 2년 연속 고용 증가 때 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고용우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지역 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맞춤형마케팅비 700만원과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0.5% 인하(3년간), 신용보증 수수료 0.2~0.4% 인하(3년간)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의: 051)600-1782

동주대 신임 총장에 김영탁 전 중앙대 대학원장

동주대학교 신임 총장에 김영탁(57·사진) 전 중앙대학교 대학원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서피학원은 이사회에서 김영탁 원장을 동주대학 제10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석사학위 취득 후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부터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실장과 공과대학 학장, 일반대학원 원장 등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쌓았다.

김 신임 총장은 3월 1일부터 동주대학교 총장 임기를 시작하고 취임식은 12일 11시 동주대학교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 기업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 조선해양기자재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 기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중소 벤처기업은 3월 19일까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홈페이지(www.komeri.re.kr)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051)400-5173

미셸 여사 아동비만 퇴치 위해 TV출연 몸개그

"나처럼 해봐요" 화끈 막춤

남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못지않은 연설 솜씨로 유명한 미셸 오바마가 이번엔 뛰어난 코믹 댄스로 화제에 올랐다. 특히 3년 전부터 시작한 아동 비만 퇴치를 위해 스스로 망가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 많은 미국인들을 미소 짓게 하고 있다.

미셸 여사는 22일(현지시간) 밤 방영된 NBC 방송의 토크쇼 프로그램 '지미 팰런의 레이트 나이트'에 출연해 '엄마'로 변장한 진행자 팰런과 '엄마 춤의 진화'라는 우스꽝스러운 춤을 선보였다.

미셸 여사가 주도하는 어린이 건강 캠페인 '레츠 무브(Let's Move)'의 하나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일짜 따라 춤을 추라는 취지에서 스스로 망가져 보인 것이다. 손가락을 찌르고 엉덩이를 신나게 흔드는 미셸 여사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60만 조회 수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셸 오바마(오른쪽)가 토크쇼 진행자 지미 팰런과 아동 비만을 퇴치하기 위한 코믹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셸 여사는 6~11세 어린이의 18%(2010년 현재)가 비만인 미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닥터 오즈 쇼' 등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미셸 여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관한 팰런의 질문을 "제이 레노가 NBC 방송의 '투나잇 쇼'에서 하차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생각 중"이라고 대답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국현기자

"버리느니 빈곤층 주자"

"수거된 말고기 제품 무상 배급" 독일 장관 주장에 "모욕적 발언" 비난

값싼 말고기를 쇠고기라고 속여 판 이른바 '말고기 파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영국·아일랜드에서 '말고기 버거'로 시작된 파문은 이탈리아까지 번졌고 독일에서는 적발된 제품을 빈곤층에 제공하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독일 여당인 기독교민주당의 간부인 하르트비히 피셔는 23일(현지시간) 일간지 빌트와 한 회견에서 "그간 수거한 '말고기 섞인 다진 쇠고기'를 빈곤층에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디르크 니벨 개발부 장관도 "독일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굶주리고 세계에서도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인다"며 "(수거한 제품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다"고 제안에 적극 동조했다.

이에 대해 독일 야당은 "가난한 이들을 모욕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독일복음주의교회의 일부 목회자들도 "소비될 음식을 취향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준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탈리아 볼로냐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냉동 라자냐에서 말고기 혼용 사례가 처음 나타났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육가공 식재료 인스페트 ('볼로냐 라자냐'로 표기된 가공식품 24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말 DNA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관리들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던 스위스 네슬레사의 육가공식품 중에서는 말고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국현기자 knlee@metroseoul.co.kr

"아빠 힘 안들죠?" 중국의 음력 정월 대보름인 원소절을 하루 앞둔 23일 난징의 공자사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부모의 어깨에 올라탄 채 등불축제를 즐기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북 핵실험 반대 시위자 中 공안 9명 강제 연행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핵실험 반대 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자칫 반정부 시위로 확산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광둥성 광저우에서 23일 민주화 요구 인사들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가두시위를 벌이다 최소한 9명이 공안에 연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이국현기자

미 공무원 100만명 무급휴가·20% 감봉 '초읽기'

"일단 예산 감축이 현실화하면 수천 명의 교사와 교육자가 해고되고 수만 명의 부모가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 헤매게 된다. 항공 관제사와 공항 경비원 등도 줄어 전국적으로 연착 사태가 빚어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시퀘스터(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가 미국 경제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주례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통해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 삭감 우려로 국방부가 이미 80만 명의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통보하고 해군은 항공모함 배치를 연기했다"며 "공화당이 부유층과 대기업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느라 협상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연방공무원노조 등도 시퀘스터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백악관 행정부와 의회가 이달 말까지 시퀘스터 회피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3 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정부 기관 종사자들이 무급 휴가를 떠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조 지도부는 이로 인해 올해에만 조합원들의 임금이 20%까지 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국현기자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멕시코 아기 이름이 무려 '239자'
- 사진 속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네
- 6개월 동안 우주복 입고 산 남자

경축!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을 특별한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오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GM "한국지엠에 8조 투자" 철수설 일축

향후 5년동안 신차 6종 개발 계획 밝혀
"수출기지 역할에 더해 내수 20% 목표"

한국지엠이 5년간 8조원을 투자해 신차 6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의 생산이 무산된 신형 크루즈 대신 또 다른 신차를 생산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실행 계획은 물론 문서화된 약속이 없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차가 부평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신형 캡티바인지, 전혀 새로운 차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캡티바를 군산 라인으로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팀 리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 부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지엠의 미래 청사진 'GMK 20XX – 경쟁력 지속 가능성'을 발표했다.

리 사장은 "향후 5년간 8조원을 투자할 것이다. (한국 철수 등) 많은 추측이 있으나 GM은 한국에 남아 투자 결실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GM은 8조원을 할부로 쓰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철수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묻자 "경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지만 신차, 파워트레인 개발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리 사장은 이어 "한국지엠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위해 남은 부채를 올 상반기에 상환키로 했다. 지난해 말 50%는 상환했고 나머지는 올 상반기 상환하겠다는 의향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GM은 연말까지 한국지엠 본사 내 디자인센터를 두 배로 늘려 미국,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큰 디자인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지난해 127만 대 이상을 수출한 CKD(반조립 상태로 포장·판매하는 방식)의 생산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이렇게 GM의 글로벌 소형차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내수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샤 사장은 "현재 한국 내 판매는 14만6000대, 9.5% 점유율로 한국은 쉐보레의 세계 7번째 시장이다. 점유율을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로,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지난해 두 차례의 희망퇴직 이후 추가 인력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국지엠이 내수 점유율과 수출을 확대한다면 희망퇴직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훈기자 @metroseoul.co.kr

로이킴·정준영과 함께 한 '트랙스 콘서트' 한국지엠은 트랙스 출시 기념으로 이 차의 광고모델인 로이킴(왼쪽)과 정준영의 뮤직 데이트 행사를 지난 주말인 23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했다. 트랙스는 국내 최초로 1.4ℓ 터보 엔진을 장착한 소형 SUV다. /한국지엠 제공

한국토요타, 고교생 27명에 장학금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꿈을 향해 매진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장학 프로그램인 '꿈 더하기 장학금'이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가운데 이 회사의 공익재단 어울림재단은 23일 서울 압구정동 일대에서 '2013 토요타 꿈 더하기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토요타 꿈 더하기 장학금은 한국토요타가 2005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전국의 학교, 복지관, 교사의 추천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향해 열심히 생활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매년 1인당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98명에게 총 6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7명의 꿈나무가 새롭게 선발돼 3년간 장학금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시사회에 인사 온 스타의 기분을 만끽하며 장차 꿈의 실현을 위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프라이빗 상영관에서 영화 시사회 스타일로 수여식을 진행하고, 영화 '베를린'을 관람하는 등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나카바야시(오른쪽) 한국토요타 사장이 학생에게 기념선물로 증정한 운동화의 끈을 직접 묶어주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제공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저 또한 고등학생 때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국토요타도 꿈을 실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했다. /박상훈기자

슈퍼볼 이어 아카데미상에 현대차 광고 9편 협찬키로

현대자동차가 슈퍼볼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대규모 광고를 한다.

현대차는 ABC방송사에 의해 중계된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형 승용차 에쿠스, 준대형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 등 9편의 광고를 협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다.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24개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 축제다.

현대차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식 전 2회, 시상식 본 프로그램 중 7회 등 30초 분량의 광고 총 9편을 내보낸다.

그랜저급 실내… 뒷좌석 어른 셋도 넉넉

드라이빙 열전 | 혼다 어코드

다들 '수입차, 수입차' 하는데 나는 어떤 모델을 탈 수 있을까.

수입차 애호가가 아니라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고민이다. 수입차 점유율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15% 이상 되는 세상이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독일 삼총사의 경우 주력 모델의 가격은 6000만원대. 엔트리급이라 해도 4000만원대이니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버겁다.

그렇다면 일본산이나 폭스바겐, 푸조, 포드의 3000만원대 차량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있거나 노부모님과 함께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일본 중형 세단이 비교 우위에 선다.

폭스바겐 골프, 제타, 티구안, 푸조의 3008, 308, 포드의 퓨전, 포커스와 같은 모델은 성능, 디자인을 떠나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실내가 좁다.

하지만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 닛산의 알티마는 국산으로 치면 그랜저 수준의 차체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코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무라이 삼총사 중형 세단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됐기

가장 핫한 사무라이 세단
소음 잡는 노이즈 캔슬링
쉼없는 700km 달리는 연비

때문이다.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적어도 '평균 이상은 할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후면을 제외하면 외관은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차체가 조금 줄었음에도 넓어진 실내에 눈길을 둘 만하다. 뒷좌석의 경우 어른 3명이 타도 여유가 있다.

시승 모델인 2.4 EX-L은 가솔린 엔진과 CVT(무단변속기)가 어울려 188마력, 25.0kg.m의 토크를 뿜어낸다. 캠리, 알티마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행 시 뒷좌석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실내가 조용하다. 소음을 상쇄하는 자체 소리를 내서 조용하게 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덕이다.

인테리어는 사실 화려하거나 감동적인 수준은 아니다. 패밀리 세단답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뺐어도 그만인 것들을 최대한 자제한 느낌이다.

연비는 이 차의 또 다른 꽃이다. 복합연비 기준으로 12.5km/ℓ인데 속도 계기판을 감싼 '그린' 컬러를 유지할 경우 7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차체가 준대형인 것을 감안하면 뛰어난 경제성이다.

다만 후방카메라가 보여주는 영상의 왜곡이 심하고 3.5 모델의 가격이 경쟁차보다 300만~400만원 비싼 건 흠이다. 2.4 EX 3250만원, 2.4 EX-L 3490만원, 3.5 EX-L 4190만원. /박상훈기자

'손안의 세상' 뭘로 바뀔까

오늘 바르셀로나 MWC 개막… 국내 기업 신기술에 시선집중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국내 업체는 어떤 기술을 선보일까.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새로운 비밀병기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태블릿 PC '갤럭시 노트 8.0'을 공개한다. 이 제품은 '갤럭시 노트 10.1'보다 화면 크기가 2인치 줄었고 무게는 절반 수준(338g)이다.

사양도 더 낫다. 1.4㎓ 듀얼코어였던 프로세서는 1.6㎓ 쿼드코어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됐고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샌드위치' 대신 4.1.2 '젤리빈'이 들어갔다.

배터리 용량은 4600mAh이며 화면 해상도는 1280×800, 밀도는 189ppi(인치당 화소 수)다.

LG전자는 '옵티머스 4형제'를 앞세워 MWC의 문을 두드린다. G시리즈와 F시리즈, L시리즈와 뷰시리즈 등 4개 시리즈의 9개 모델이 주인공이다.

대표 제품은 지난주 국내에서 공개한 옵티머스G 프로다. LG전자 최초의 풀HD(화소 수 1920×1080) 스마트폰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새 기술을 자랑한다.

SK텔레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LTE 어드밴스트(LTE-A)'를 시연한다. LTE-A는 지금의 LTE와 견줘 이론상 최대 1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4G 서비스다.

LTE-A로는 1.4GB(기가바이트) 용량의 영화 한 편을 75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KT는 트래픽 제어 기술을 사용해 무선 환경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LTE 워프 어드밴스트'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품질 상태를 고려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ABC 기술을 공개한다.

/박성훈기자 zsan@metroseoul.co.kr

8인치 크기 갤노트, MWC에 등장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 하루 전인 24일 바르셀로나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8인치 화면에 S펜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 8.0' 등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영진전문대 2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大'

KMAC 올해 조사결과

영진전문대학(총장 최재영)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실시한 2013년(제10차)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기업) 조사 결과 전문대학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경받는 1위 대학으로 20일 선정됐다.

2013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기업) 전문대학 부문 조사에서 영진전문대학은 인재 육성, 고객 만족, 믿을 만한 대학 등 각 조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종합 점수 7.21점으로 조사 대상 전문대학 중 최고 점수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통한 우수한 경영혁을 바탕으로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공헌 이미지 가치를 증대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대학(기업)을 선정했다.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져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 점이 특징.

1977년 개교한 이 대학은 국내 대학 최초로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창안해 국내 최고의 취업률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등으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온 것이 이번 조사에서 높이 평가됐다.

주문식 교육과 함께 영진은 자체 보유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 초·중고생은 물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교육기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교육기부 대회에서 교육기부 대상으로 이어졌다. /김지원기자

75세도 가입되는 고령자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과 갑상선암(갑상선암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받은 경우)은 진단 확정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반드시 새 역사 써야 한다

청론탁설
유 병 갈
<언론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오늘(25일) 취임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취임은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보수성이 강한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도 독립 후 200년이 넘도록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인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대선 때 야당이 이슈로 삼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날 어두운 시절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부담을 털어내고 지난 1987년 6·29 선언(민주화선언) 이후 6번째 직선 대선에서 처음으로 과반수(51.6%)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 속에 오늘 취임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지지율과는 대조적으로 허니문의 여유도 없이 취임 초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녹장 인사'에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야당도 인사청문회 자세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 국가를 자초하면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심지어 중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안보를 유례없이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극동지역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갈수록 껄끄러운 상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내적으로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갈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물론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이러한 난제를 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각 사회 이해집단에서는 그동안 유보(?)했던 갈등 구조를 표출할 태세다. 어느 한 부분도 변안한 구석이 없다. 게다가 공약 이행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 문제로 재정을 압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고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해법은 무엇보다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길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우선 여야 간 상생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대립에서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또 야당도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결국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경제에는 국민제일주의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정치를 펼치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써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말만 무성한 전관예우 근절

오늘의 시선
현 이 윤
<칼럼니스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첫 고위직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 등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근무했다. 로펌에서 일할 당시 한 달에 수천만~수억원대의 봉급을 받았다. 공직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활동하다가 다시 고위 공직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 총리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2년 동안 약 6억7000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역시 법무법인에서 1년5개월 간 일하며 15억9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윤 후보자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을 마치고 로펌 고문을 지낸 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무기수입중개업체의 고문으로 2년간 2억여 원을 받았다. 불법은 아닐 뿐 모두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로펌→공직의 고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맥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특성상 후배 공직자들은 퇴직한 선배 공직자들의 '청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 공직사회가 로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에 있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특정 로펌 출신의 공직자가 주요 공직에 다시 진출하면 해당 로펌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라고 한다.

물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적 허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들이 퇴직 당시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로펌에 들어가면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 지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공직자윤리법도 엄격하지 못한 심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직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고질적 병폐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부서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처의 업무로 폭을 넓히고 취업 제한 대상 기업 기준도 낮춰야 한다. 차제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포토프리즘 "영차~ 영차~" 50년 전통의 기줄다리기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23일 강원 삼척시 엑스포광장에서 350년 전통을 이어온 세시민속놀이인 기줄다리기 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삼척기줄은 조선 현종 때 시작된 기줄다리기는 양쪽으로 게 다리처럼 뻗쳐진 줄의 모양이 바다의 게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모든 액을 물리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다. /연합뉴스

카리브의 전설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유카탄반도 끝자락에 펼쳐지는 수평선은 카리브해의 벌거벗은 곡선이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싱그럽다. 모래는 분말가루처럼 부드럽고 희다. 파도가 어디선가부터 날아오는 해조는 짙은 녹색을 풍경에 더한다. 야자 잎으로 엮은 파로솔 같은 작은 오두막에서 태양을 가리고 누우면 나는 어느새 태고의 소년이 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념과 휴식을 모르는 번뇌 또한 종적을 감춘다.

하지만 이 바다가 언제나 그렇게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라 크루즈 항구는 그 뜻이 '진실한 십자가'다. 본래 의미와는 달리 이곳에 상륙해 그 이름을 지은 스페인 제국의 코르테스는 십자가 대신 칼을 들고 원주민들의 삶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다. 아즈텍과 마야는 그렇게 해서 문명의 역사로부터 지워져 기고 말았다.

그렇다 해도 활로 잘라내버린 시간은 자연과 기억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밀림 속에 잡초가 덮인 거대한 무덤처럼 남겨져 있던 석조사원과 석상은 탐험가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상을 단번에 파괴해 버리는 위용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뿐만 아니다. 고원과 호수, 정글의 꽃과 새의 색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옷감과 그릇의 화려하고 솔직한 원색은 이 땅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들의 영혼을 증언해주고 있다.

독수리가 뱀을 움켜쥐고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모양을 보면 그것을 신의 계시로 여겨 수도로 택하라는 이야기 하나에 매달려 유랑했었던 이들이 세운 나라가 쇠붙이로 무장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노예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뿌리를 삶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가난하나 이들의 표정에는 우울함이 없다. 고되고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가슴속에 독수리가 살아있는 탓일 것이다.

다시 카리브의 햇살이 몸을 맡기본다. 아직 불러서지 않은 서울의 한파 소식을 떠올리며 한편 미안해지면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계절의 착란 현상을 즐긴다. 둥근 지구가 선사하는 축복의 시차다. 적도 부근의 밤은 격차가 큰 일교차로 생각보다 쌀쌀해진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돌아가는 귀로에 내 안에 카리브의 태양과 바다, 독수리와 호수 그리고 밀림의 신전이 나누어준 열정이 숨 쉬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뛴다. 전설은 이렇게 힘이 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제언, 주장(원고지 3~4매 내외) 등을 e메일(opinion@metroseoul.co.kr)로 보내주시면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이은 스타 성추문에 '흔들리는 꽃들'

정선자(47·주부)

가수 고영욱을 시작으로 요즘 연예계가 성추문으로 떠들썩합니다.

사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른 지는 오래됐지만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스타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반듯한 훈남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던 박시후의 성폭행 뉴스는 최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타에 대한 실망감도 컸지만 그보다 한참 예민한 청소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1, 중2가 되는 우리 아이들만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물론 행동까지 무조건 따라하고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박시후 성범죄 역시 행여 '나도 따라 해볼까' 호기심을 갖거나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일부 연예인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스타들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연예인일수록 행동거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들이 화려함만 좇으며 쾌락을 즐기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년 내내 이 목소리를 기억해 달라

K팝 아낌없는 지원을

● 태진아(60·대한가수협회장)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 모두 부자 되고 1%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늘기 연장과 시간에 안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또 한류의 성장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K팝 열풍을 이끄는 선후배 가수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K-팝이 더 활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길 당부한다.

서민들 위한 정책 기대

● 유광린(72·건설업)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직접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잘한 일이나 [illegible] 사람에겐 한 끼 밥값에 불과한 연금을 부자 노인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필요는 없다. 다만 말들을 빼서 뒷돈을 괴는 식의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돈이 다 젊은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도움 필요 계층 살피야

● 박종건(67·개인택시 운영)

경제민주화는 곧 서민이 잘 사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큰 어려움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illegible] 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LPG 가스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면 손님도 그렇고 택시 운전자도 손해다. 연료비 지원을 늘리면 운전자와 손님 모두 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다.

과거의 상처 치유 앞장

● 배종현(42·도서출판 갈라북스 대표)

상처는 치유돼야 새 살이 나온다. 새 정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속적인 번영을 이끌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 누구나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결과를 믿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선진 국가의 일원으로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진짜 반값 등록금 부탁

● 박보람(24·대학생)

현실적인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길 바란다. 특히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구체적인 인상 요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을 실현할 때도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장학금을 축소하는 등 편법을 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감시를 부탁한다. 국가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새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마당에 마련된 '희망달집'에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행복·희망 향하는 두 바퀴 '복지·성장'

박근혜 정부 5년 청사진 담은 5대 국정목표 제시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국민행복'과 '희망'을 키워드로 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대선 기간 동안 국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내세운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더구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 경제 성장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지난 총·대선 공약이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원칙이 바로 선 이라는 개념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폐기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 정부는 이런 의중을 담아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약 300만 명 추정)는 2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약 100만 명)는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약 60만 명)는 4만~10만원을, 국민연금 미가입자(150만 명)는 약 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에 대한 정부의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이 늘어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오는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 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약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제민주화 과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중소기업·자영업 보호는 세제 지원 강화, 가업 상속 지원 등으로 구체화됐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몫으로 넘겼다.

[illegible]

'박근혜 정부' 5개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illegible]

맞춤형 고용·복지

[illegible]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illegible]

안전과 통합의 사회

[illegible]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illegible]

[illegible]

김덕수·김영임이 열고 싸이가 닫는다

미리보는 취임식 공연

'개콘' 출연진 사회 맡아… 장윤정·남경주 등 스타 총출동 시대별 대표곡 릴레이

◆통사 키워드는 열정과 흥겨

인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해 취임식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식전행사는 연예계 스타들이 선사하는 흥겨운 무대와 웃음, 본행사는 품격 있는 문화 공연으로 채워진다. 취임식 총감독을 맡은 윤호진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은 "창작 뮤지컬에 대부 닮게 음악과 뮤지컬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극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시20분 시작하는 식전행사는 '국민 뮤지컬-행복한 세상'을 타이틀로 단순히 보는 무대가 아닌 취임식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된다.

사회는 폭넓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KBS2 개그콘서트 출연 개그맨들이 맡았다. 김준호-허경환 신보라는 단상무대, 최효종-박성호-김지민은 본수대 무대에서 진행한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길놀이 공연과 김영임 명창의 합동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인기 가수와 뮤지컬 스타들이 릴레이로 무대에 올라 건국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상을 반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시대별 대표곡을 부른다.

1950~60년대를 상징하는 공연으로 뮤지컬팀이 당시의 유행 의상을 입고 미스터 브라스의 '빨간에서 울어온 김상시' 관악연주에 맞춰 퍼포먼스를 펼친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와 '님과 함께'를 부른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소녀는 1970~80년대 유행곡 '고래사냥' '젊은 그대' '여행을 떠나요' 등을 메들리로 부른다.

인기 그룹 JYJ는 1990~2000년대를 맡아 서태지와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비롯한 90년대 대표곡 리믹스를 들려준다. 또 2002년 한 월드컵 응원곡인 '오! 필승코리아'를 부르며 다시 한번 국민들과 뜨겁게 호흡한다.

◆JYJ 아이돌그룹 중 유일 발탁

JYJ는 팀 결성 이후 한 차례도 지상파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아이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초대받아 화제를 모았다. 아이돌 그룹 최초로 월드투어를 개최하며 전 세계에 K-팝을 알렸고, 정부 기관 및 국가 주요 행사의 홍보대사로 분주히 활동한 이력이 발탁의 배경이 됐다.

식전행사의 하이라이트이자 엔딩 무대는 국제가수 싸이가 장식한다.

싸이는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직접 가사를 바꾼 '강남스타일'과 '챔피언'을 부른다. 해외 프로모션과 신곡 준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그는 터키 프로모션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입국장에 들어선 싸이는 "나라의 경사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식전행사 중간에는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용감한 녀석들' 출연진이 등장해 콩트를 선사한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직후 방송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언급한 풍자 개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무대에 더욱 관심을 모은다.

◆조수미·최현수 애국가 불러

뜨거운 분위기의 식전행사가 끝나면 본행사가 이어진다. 본행사는 박 당선인이 연령·지역별 국민대표 3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취임식은 국민의례·국무총리 식사, 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당선인 취임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가 부른다. 축하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양방언이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작곡한 '아리랑 판타지'를 안숙선·안순아·최정원·나윤선 등 4명의 디바가 국민합창단과 함께 부른다. /유순호기자 suro@metroseoul.co.kr

한복 입은 朴 대통령 대형 복주머니 개봉

광화문광장서 뒤풀이 행사

25일 0시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민과 하나 되는 축제'로 열린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대통합' 의미를 살려 취임식을 준비했다.

취임식은 이날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행사로 시작됐다. 국민 대표 18명이 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보신각 종을 33번 타종했다.

박 대통령의 일정은 25일 오전 한종원 환송으로 시작된다. 주민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떠나 정부 대표-국민 대표 등과 현충원을 참배한다.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는 오전 9시20분부터 식전 행사가 펼쳐진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시작에 맞춰 행사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정문에서 국민 대표 30여 명과 함께 약 200m가량 도보로 이동해 단상에 오른다.

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한 후 박 대통령이 국회 정문으로 입장하면 취임식 본행사는 마무리된다.

'뒤풀이 행사'는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친 뒤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한복을 입고 '복주머니 개봉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외교사절 등 국내외 각계 대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축연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국 경축사절 등 주요 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을 하고 취임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관람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기려 뽑은 국민 7만여 명과 각국 내외빈 초청객 등 총 3만여 명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과학꿈나무 조준혁, 체조선수 양학선, 재외동포 등 국민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정유리기자 grass100@

7번방의 선물' 한국영화 8번째로 1000만 관객 돌파 … 흥행 비결은

웃음+눈물 잘 버무린 부성애 코드 통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휴먼 코미디 '7번방의 선물'이 꿈의 '1000만 클럽'에 여덟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표 참고>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번방…'은 상영 32일째인 23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33만5602명을 보태 누적 관객 수 1002만6794명을 기록했다

▶ 누구도 예상 못한 기적

이제까지 '왕의 남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1000만 흥행작들은 톱스타들과 독특한 소재, 100억원대의 많은 제작비를 앞세워 기획부터 '대박'을 염두에 두고 출발했다. 반면 '7번방…'은 류승룡 말고는 간판급 배우가 없을 뿐더러, 최루성 신파에 코미디를 가미한 이야기가 워낙 익숙해 시작 단계에선 별다른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총 제작비와 지금까지의 극장 매출액은 55억원과 760억원으로 역대 한국 영화들 가운데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많이 버는 작품이 됐다

▶ 말 그대로 호사다마

지난해 크리스마스 개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촬영에 차질을 빚어 설 연휴 직전으로 공개가 미뤄졌다. 늦춰진 개봉 시기에 맞춰 제목도 '12월23일'에서 '7번방…'으로 바뀌었다. 바로 이 같은 악재가 오히려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가슴 아픈 부성애를 다룬 덕분에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함께 볼 만한 '착한 영화'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혜승 한신대 한국어문학부 교수는 "웃음과 눈물에 유독 약한 국내 관객들의 오랜 정서를 파고 들었다"며 "가족영화 시장이 '7번방…'의 흥행에 힘입어 완전히 자리잡은 것같다"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역대 한국영화 1000만 돌파작들

연도	제목	관객수
2003	실미도	1108만
2004	태극기 휘날리며	1174만
2005	왕의 남자	1230만
2006	괴물	1301만
2009	해운대	1145만
2012	도둑들	1302만
	광해, 왕이 된 남자	1231만
2013	7번방의 선물	1002만6794 (23일 현재)

wind8686@naver.com

"'스토커' 촬영기간 집밥 그리웠죠"

박찬욱 감독 "차기작은 거친 남자 이야기 연출"

박찬욱 감독은 설렘과 피곤이 겹겹이 쌓인 얼굴이었다.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의 정식 공개에 앞서 쏟아지는 호평을 두루 반기워하면서도, 일주일 단위로 유럽·아시아·북미 지역을 바쁘게 오가는 홍보 일정에 파김치가 된 표정이었다

박 감독은 지난주 국내 취재진과 따로 만나 "현지 촬영지였던 미국 내슈빌에는 한국 식당이 거의 없었던 데다, 촬영장 '밥차'의 유일한 한국인 요리사도 처음 약속과 달리 (웃음) 한식을 거의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집밥이 정말 그리웠다"고 털어놨다

28일 국내에서 개봉될 이번 작품을 "악에 끌리는 사춘기 소녀의 성장담"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제까지의 작품들 가운데 현실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다. 극 전체가 은유로 구성된 것도 전작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니콜 키드먼과 제작자로 나선 리들리·고 토니 스콧 형제 등 세계적인 영화인들과 함께 일한 소감과 에피소드에 대해선 "어디든 좋은 배우와 스태프는 다 머리가 좋은 것 같다"며 "지난해 8월 한국에서 동생 토니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었다. 마초 중의 마초로, 마지막 만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다 다쳤다'며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유쾌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라 믿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작도 할리우드에서 찍을 계획이다. 박 감독은 "'스토커'와 정 반대로 집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친 남자들의 이야기를 연출하고 싶다"면서 "이 영화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 관객들에게 환영받길 희망한다. 처음부터 원하는 바였다"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조성준기자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이웃집 꽃미남' OST 발표

배우 김슬기가 26일 tvN 월화극 '이웃집 꽃미남'의 OST '너 땜에 잠이 깨'를 발표한다.

유쾌한 록 장르의 곡으로 소속사 식구이자 이 드라마에서 김슬기와 커플 연기를 펼치고 있는 고경표가 피처링으로 힘을 보탰다. 드라마 관계자는 "김슬기가 첫 정식 음반 작업임에도 발군의 가창력을 뽐냈다"고 귀띔했다. '이웃집 꽃미남'은 26일 16회로 종영한다.

화보 촬영중 '귀요미 포스'

배우 김우빈이 화보 촬영 중 귀여운 포즈로 휴식을 취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에스콰이어 3월호에서 스포츠 패션 브랜드 데상트와 함께 제주도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한 김우빈은 팬레 된 화이트 컬러의 트레일 러닝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했다. 지난달 드라마 '학교 2013'을 마친 그는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일본 첫 싱글 이미지 공개

가수 서인국이 일본 첫 싱글 이미지와 타이틀 곡명을 공개하며 데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24일 일본에서 출시되는 싱글의 타이틀곡은 '펄라이 어웨이'로 부드러운 목소리와 가창력이 돋보이는 발라드다. 최근 공개한 재킷 사진에서 그는 흐트러진 웨이브 헤어와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재팬 투어-어메이징' 돌입

가수 케이윌이 일본 콘서트 투어에 돌입했다.

22일 고베 코트 파아홀에서 '케이윌 재팬 투어-어메이징' 첫 공연을 열었고, 24일 도쿄 나카노 선프라자홀에서 공연했다. 소속사는 "남자 솔로 가수, 특히 발라드 가수임에도 지난해 오사카와 도쿄 공연을 완판시켰다. 이번 투어를 통해 발라드 황제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소설가·박사… '르네상스맨'

2년 만에 이색 공연 여는 '가요계 음유시인' 루시드 폴

가요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루시드 폴(38)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대중 곁에 돌아왔다. 지난달 펴낸 첫 소설집 '무국적 요리'와 4월 선보일 예정인 콘서트 '목소리와 기타 2013-다른 당신들'을 들고 왔다.

#독특한 스타일 '무국적 요리' 펴내

"보이나요 오 사랑 고등어' 등 나지막이 읊조리는 듯한 서정적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바쁘게 활동해온 루시드 폴은 지난해 유난히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2011년 12월 낸 5집 '아름다운 날들' 활동을 마치고 가요계 데뷔 후 7년 만에 긴 휴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1년간 여행하고 글을 쓰면서 지냈다는 그는 '무국적 요리'라는 소설집을 탄생시키며 자신의 직함에 싱어송라이터, 화학공학 박사에 이어 소설가를 추가했다. 브라질의 가수 겸 작가 치코 부아르케의 소설 '부다페스트'를 번역하면서 소설 쓰기의 매력에 빠졌다.

"만약 책을 낸다면 에세이집이 아닌 문학 작품을 내고 싶었어요. 음악처럼 창작물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책들 속에서 쓰레기를 쓰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록으로 묶어둔다는 정말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내게 됐어요."

'탕' 등 기적의 '콩' 등 독특한 제목의 단편 여덟 편으로 이뤄진 이 소설은 국적도 알 수 없고, 성별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한 전통의 영향도 보이지 않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유행이나 장르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펼쳐 보인 루시드 폴의 음악처럼 기존의 소설 문법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독특한 세계관과 스타일의 글을 통해 세상에서 부족하게 보이는 누군가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다.

"각각의 단편들이 다 다른데 공통점은 공간과 시간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가치는 국적이나 성별, 전통 등 구분을 떠나 다르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무국적 요리처럼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란한 장치·무대가 없다

다름을 강조하는 루시드 폴의 생각은 2년 만에 재개하는 공연에서도 엿볼 수 있다. 4월부터 시작할 공연의 부제는 '다른 당신들'로 가요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형식의 공연이다. 한 달간 무려 24회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과 만나기로 했다. 또 일반적인 콘서트 장이 아닌 70석 내외의 홀로 장소를 정했고, 각자 개성이 다른 관객들이 편하게 앉아 즐길 수 있도록 가지각색의 의자들을 마련했다.

"매년 공연을 하다 보니 타성에 젖게 되더라고요. 늘 하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제 음악의 특성상 복잡한 음향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의 탈피를 해보기로 했죠.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도 비틀어보고 싶어서 한 달을 월요일만 쉬고 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그날그날 느낌에 따라 다른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공연의 매력"이라면서 "사실 처음엔 두 달 내내 공연하고 싶은 욕심을 부려봤지만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란한 장치나 무대는 없다. 루시드 폴의 노래와 기타 연주, 그리고 건반 주자의 협연이 전부다. 그는 "단조로움을 원하는 분들이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가을에는 음반을 내고 장기 공연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연을 하면서 곡을 쓰면 좋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공연 전이나 후에 곡 작업을 해서 가을에 음반을 내고 출근하듯 다음 공연을 펼치고 싶어요."

/박지원기자 sak3427@metroseoul.co.kr

사진/안테나뮤직 제공 디자인/박선영

김성민, 연상의 치과의사와 비밀결혼

주말 연예계 애정전선 총정리

지난 주말 연예계 스타들의 사랑 전선에 희비가 교차했다.

개그계 대표 커플인 윤형빈·정경미가 8년간의 공개 연애 끝에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경규의 주례와 1500명이 넘는 하객의 축하 속에 부부가 된 이들은 "이놀왕·박미선 부부처럼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배우 김성민이 네 살 연상의 치과의사와 비밀리에 결혼한 소식도 뒤늦게 전해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신부는 출중한 미모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던 이한나씨로, 두 사람은 20일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배우 윤계상과 이하늬 역시 같은 날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달 중순 발리 여행 동반 사실이 알려지며 열애설에 휩싸였던 이들은 당시엔 "각자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정작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되자 "한 달째 교제 중"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배우 이세창·김지연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성격 차이로 2011년부터 별거해왔으며, 이달 초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김C 역시 아내와 3년째 별거 중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본인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민화기자 tak0427@metroseoul.co.kr

김영철 5개월 열애 마침표

2세 연하 외국계 회사원과 최근 결별… 원인은 성격차로 알려져

개그맨 김영철이 5개월간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었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영철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해오던 두 살 연하의 여성과 최근 결별했다.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인 미모의 여성과 2011년 겨울 처음 만나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사실이 지난달 초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결별은 교제에 대한 주위의 지나친 관심과 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위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사랑을 키워왔지만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성급한 추측이 나도는 등 연예가에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영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관심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상대가 일반인이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위의 시선은 더욱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영철의 한 측근은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여자친구를 끝까지 배려했고, 고민 끝에 이별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영철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데뷔 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MBC '무한도전'의 '못친소' 편과 '맞짱 특집'에 연달아 출연하는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고, SBS 파워FM '김영철의 펀펀 투데이' DJ로도 활동 중이다.

'영어 잘하는 개그맨'으로 독보적인 영역을 다진 그는 기업과 전국 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어 학습서와 번역서에 이어 자전 에세이 '일단 시작해'를 출간했다. 또 클래식계로 영역을 넓혀 다음달 '김영철의 펀펀(Fun Fun) 클래식'이라는 공연에서 해설과 연기를 맡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우결' 세계판 4월초 방영

2PM 택연(사진)과 f(x) 빅토리아가 출연하는 MBC '우리 결혼했어요'의 세계판이 4월 초 세계 20여 개국에서 동시 방송된다.

택연과 짝을 이룬 대만 아이돌그룹 레이블의 멤버 오영결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해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택연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이들 커플의 파트너인 우자이 미나는 게이오대 재학 시절 한국어를 부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한국과 대만, 일본을 오가며 촬영 중이다. 세계판은 MBC 드라마넷을 비롯한 각 국의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통해 총 15회에 걸쳐 방송된다.

/전효람기자 kwon항

싸이 빌보드 48위→26위… 유튜브 성적 반영 때문

싸이가 빌보드 정상 등극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빌보드는 최근 '핫 100'을 비롯해 장르별 차트인 '컨트리 송스', 'R&B·힙합 송스' 등에 유튜브 조회수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한 음반 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여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변경된 순위 산정방식은 21일 공개한 3월 2일자 차트에 처음 반영됐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지난주보다 무려 22계단이나 뛰어오르며 26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집계 방식 변화가 3개월만 앞서 이뤄졌다면 싸이의 빌보드 1위는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까지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 4월 신곡을 출시하는 싸이는 유튜브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서 빌보드에서 신기록 수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

등산화는 무겁다? 편견 깨는 350g

노스페이스 초경량 등산화 '2013 다이나믹 하이킹' 쿠셔닝·접지력도 탁월

러닝화를 중심으로 운동화 시장을 강타한 '초경량' 바람이 올봄 아웃도어 시장까지 불어닥쳤다.

최근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등산화는 무겁다'라는 상식을 깬 '초경량'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첨단 스포츠 과학을 적용해 착화감을 높이고 산뜻한 컬러와 디자인까지 더하면서 운동화의 자리를 넘보는 중이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2013 다이나믹 하이킹(Dynamic Hiking)'은 대표적인 초경량 등산화. 지난해 출시된 다이나믹 하이킹에 경량성·충격 흡수·안정성·접지력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무게는 줄인 최첨단 제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스포츠 브랜드 마라톤화 중창에서나 볼 수 있던 경량성과 쿠셔닝을 갖춘 소재를 적용한 것. 아웃솔이 들어 쓸 정도로 가벼워 신발 무게가 350g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반응성이 뛰어난 파일론 소재를 신발 옆에 엑스(X)자 모양으로 교차 배치해 발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은 흡수하면서 추진력은 향상시켜준다. 특히 아웃솔 밖에 하이브리드와 와플 패턴을 적용, 강력한 접지력을 갖춰 체력 소모를 줄여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3 다이나믹 하이킹' 시리즈의 대표 제품인 DYS ID

'2013 다이나믹 하이킹'의 대표 제품인 DYS ID는 근교 산행부터 중장거리 등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드컷(Mid cut) 등산화다.

인체공학적인 유선형 갑피 구조에 통기성이 뛰어난 에어 메시 소재를 사용해 하루 종일 신어도 발이 쾌적하다. 색상도 화사한 오렌지·옐로·블루 등 세 가지로 산뜻한 봄 산행에 잘 어울린다.

◆경량성 재킷·팬츠까지 선보여

노스페이스는 이번 시즌 등산화와 함께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까지 함께 선보이며 가볍고 역동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돕고 있다.

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방풍·투습·방수 기능이 탁월한 하이벤트(Hyvent) 재킷·팬츠·모자 등 의류는 물론 배낭과 같은 용품까지 다양하게 내놨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쉽고 가벼운 산행을 즐기려면 제품의 무게와 기능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2013 다이나믹 하이킹 등산화와 다이나믹 하이킹 컬렉션은 경량성은 물론 최첨단 기능을 갖춘 최적의 아웃도어 제품군"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빅마켓의 진군 '코스트코 앞마당으로'

롯데마트 회원제 할인점 28일 2개점 추가로 개장

롯데마트가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와의 '남북 전쟁'을 선언했다.

오는 28일 롯데마트의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 영등포점과 도봉점을 동시 개장하며 포문을 연다. 두 점포 모두 외국계 회원제 할인점 코스트코와 가까워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영등포점은 코스트코 양평점과 불과 1㎞가량 떨어져 있고, 도봉점은 코스트코 상봉점과 상권이 겹친다. 지난해 빅마켓 1호점인 금천점이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5.5㎞ 떨어진 곳에 문을 열었을 당시에도 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시작돼 라면값을 10원 더 싸게 내놓는 등의 영업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빅마켓은 코스트코에 없는 편의시설과 차별화한 상품으로 승기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키즈카페·애견전문숍·약국·사진관·안경점 등을 마련했고 영등포점은 문화센터도 갖췄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잡화·화장품·주방용품 등을 병행 수입해 가격을 낮췄다. 펜디 선글라스를 60~70% 저렴한 7만9900원에, 토리버치 핸드백을 25% 저렴한 26만9000원에, 클리니크 이븐 수분크림(75㎖×2개)을 3만9900원에 판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최고의 생맥주 즐기는 '하이네켄의 비법'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이 생맥주 맛을 최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생맥주 품질관리 프로그램인 '하이네켄 스타서브(Star Serve)'를 실시한다. 이에 맞춰 최근 하이네켄 본사에서 글로벌 드래프트 마스터인 프랭크 어버스이르트(위)가 내한, 우리나라의 맥주 대표들을 대상으로 생맥주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첫 출근! 스타일 살아있네

사회초년생 패션선물 제안

졸업 시즌이다.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을 축하해줄 선물로는 뭐가 좋을까.

패션 브랜드 제리토리 상품기획실 이지영 실장은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은 학생과 직장인 사이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단정하면서도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졸업 후 첫 출근을 앞둔 졸업생들에겐 제리토리의 '프레피룩' 아이템이 최고의 졸업 선물이다. 가먼트 다이드 재킷, 니트 베스트는 모노톤의 색상에 심플한 디자인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준다.

백팩에 운동화만 신던 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은 가방과 신발. 제리토리의 HM 턴 핸드백은 블루 컬러에 핑크빛 패턴이 새겨져 있어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럽다. 풍콩 슈즈 브랜드 스타키토의 '슈어 센스'는 에나멜한 소재와 컬러 조합이 멋스럽다.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겐 '면접 슈즈'가 제격이다. 포틀패션기업 이에프씨의 슈즈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최근 2013년형 면접용 슈즈를 출시했다. 장식을 최대한 절제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성 라인은 치마·바지 정장에 모두 어울리게 앞코를 둥글게 다듬었고 남성의 경우 슬림한 옥스퍼드화 스타일을 선보였다.

/박지원기자 pjw@

'지·구특공대' 1골 1도움 날았다

지동원 감각적 발리슛 데뷔골 — 구자철 결승골 AS

'지·구 특공대' 지동원과 구자철이 각각 분데스리가 데뷔골과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리그 잔류 희망에 불을 지폈다.

지동원은 24일 열린 2012~2013 분데스리가 23라운드 호펜하임과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44분 선제골을 넣었다. 오스트르잘렉이 좌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대 정면에서 넘어지면서 오른발로 살짝 건드려 호펜하임의 골문을 갈랐다. 지난달 1일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 이적해온 뒤 6경기 만에 나온 데뷔골로 동물적인 감각이 빛났다. 그러나 지동원은 후반 24분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쳐 교체됐다.

풀타임을 뛴 구자철은 후반 34분 사샤 묄더스의 결승골을 도왔다. 좌측에서 공을 몰고가다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건넸고, 묄더스가 원터치로 마무리했다.

리그 17위로 강등권이었던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날 2-1로 승리해 승점 18로 호펜하임(16점)을 17위로 밀어내고 16위로 올라섰다. 리그 16위는 2부 리그에서 3위를 기록한 팀과 리그 잔류를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기회가 주어진다. 15위 볼프스부르크(승점 27)와는 승점 9점 차이로 따라잡기 버거운 상황이다.

◆ 지동원 양팀 최고 평점 2

경기 후 독일 빌트지는 지동원에게 "값진 골이었다. 다시 감상해도 좋을 순도 높은 골 장면"이라는 평가와 함께 양 팀 최고인 평점 2를 줬다. 구자철 역시 평점 3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지동원(가운데)이 24일 열린 호펜하임과 경기에서 전반 44분 선제골을 넣자 구자철이 뛰어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 홈페이지 캡처

QPR 경기장 '박지성 송' 퍼지다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이 '친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진한 위로를 받았다.

박지성은 24일 영국 런던의 로프터스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유와의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해리 레드냅 QPR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해 벤치를 지켰다.

이날 미드필더진에 허점을 드러낸 QPR은 하파엘, 라이언 긱스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0-2로 패했다. 리그 꼴찌(승점 17·2승11무14패)로 19위(승점 23) 레딩과는 승점 6점 차이다. 강등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박지성은 이날 경기에 나서진 못했지만 맨유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경기 전 QPR 벤치를 지나치다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레드냅 감독과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박지성과 악수를 나누고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런던으로 원정 응원을 나선 맨유 팬들은 맨유 시절 박지성을 위해 부르던 응원가를 부르며 벤치에 앉아 있는 박지성을 응원했다. /김민준기자

매력적 UFC 여성 챔프 로우지 화끈한 암바승으로 1차 방어

UFC 첫 여성 챔피언 론다 로우지(26·미국)가 화끈한 암바승으로 1차 방어에 성공했다.

로우지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혼다 센터에서 열린 'UFC 157' 대회에서 리즈 카무치를 1라운드 4분49초 만에 암바로 꺾었다. 경기 초반 카무치의 거센 저항에 고전했지만 굳누르기 자세에서 암바로 전환해 1라운드 종료 11초를 남기고 탭을 받아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로우지는 2011년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후 6경기 연속 1라운드 암바승을 따내며 화려한 여성 파이터로 떠올랐다.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춰 여성부 경기는 절대 열지 않겠다던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결국 그녀를 받아들였다.

1라운드 암바 서브미션 연승 기록을 7경기로 늘린 로우지는 경기 후 "카무치의 반격이 거셌다.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김민준기자

섹시한 로우지 괴력엔 '헐크' UFC 첫 여성 챔피언 론다 로우지(위)가 24일 열린 'UFC 157' 대회에서 도전자 리즈 카무치를 공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추신수 안타에 도루까지

펜스서 대형 타구 잡아 중견수 수비도 합격점

추신수(31·신시내티)가 애리조나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안타를 기록하고 중견수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뽐냈다.

추신수는 24일 열린 친정팀 클리블랜드와의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2득점에 도루 하나를 보탰다.

전날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투수 브렛 마이어스의 3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를 만들어냈다. 후속 잭 한나한의 내야 땅볼과 토드 프레이저의 내야 안타로 3루까지 간 뒤 미겔 올리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홈을 밟았다.

2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 실책으로 1루를 밟은 뒤 2루 도루에 성공해 필립스의 2루타로 다시 득점에 성공했다. 4회 초 수비 때 빌리 해밀턴과 교체됐다.

관심을 모았던 중견수 수비에서는 1회 초 1사 1·2루 상황에서 제이슨 지암비의 큰 타구를 펜스까지 쫓아가 잡아내 눈길을 모았다. 신시내티는 10-13으로 졌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3 What's this?
사물에 대해 말하기(단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에서 사용했습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이건 뭐예요?
이것이 당신의 노트북인가요?
저건 스마트폰인가요?
그건 일반 핸드폰이에요.
그건 당신의 것인가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s this?
Is this your notebook?
Is that a smart phone?
It's a regular phone.
It is your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ose briefcase is this? Is it 당신의 것?
B: Yes, it's mine. Please close it.

정답: your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s (this / that)? Is it a notebook?
2. Is this your (book / notebook)? It's time to begin the meeting.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서는 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익혀 두세요.

register for the seminar early	세미나에 일찍 등록하다	register in advance for the seminar
move headquarters to Texas	본사를 Texas로 옮기다	relocate headquarters to Texas
comply with the new dress code	새 복장 규정을 준수하다	follow the new dress code
completely free of charge	완전히 무료로	absolutely free of charge
postpone the workshop	워크숍을 연기하다	put off the workshop
can't start until next month	다음 달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is able to begin next month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2. Describe a picture

인물의 외형 묘사하기

▶ 옷차림: 동사 wear 사용하기

[상의]
긴소매 She is wearing a long sleeved shirt. 그녀는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반소매 He is wearing a short sleeved shirt. 그는 반 소매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민소매 The man is wearing a sleeveless shirt. 그 남자는 민 소매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하의]
청바지 A woman is wearing a pair of jeans. 한 여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치마 She is wearing a skirt.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원피스 The woman is wearing a dress. 그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장신구: 전치사 with 사용하기

The man is wearing a suit with a tie.
A woman is wearing a shirt with glasses.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당신의
꿈이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꿈은 철없는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꿈은 오천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국민 행복 시대
그 새로운 출발에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SAMSUNG